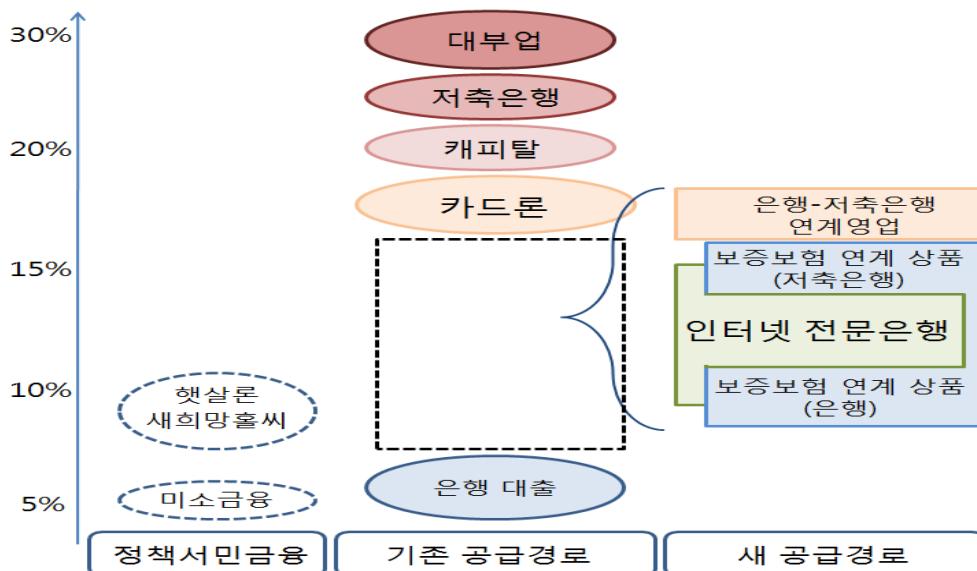


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한 이해

-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추진 방안 발표(2016.1.27)

— 금융위가 목표로 하는 중금리 구간은 7~15% 수준

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구조



자료 : 금융위원회,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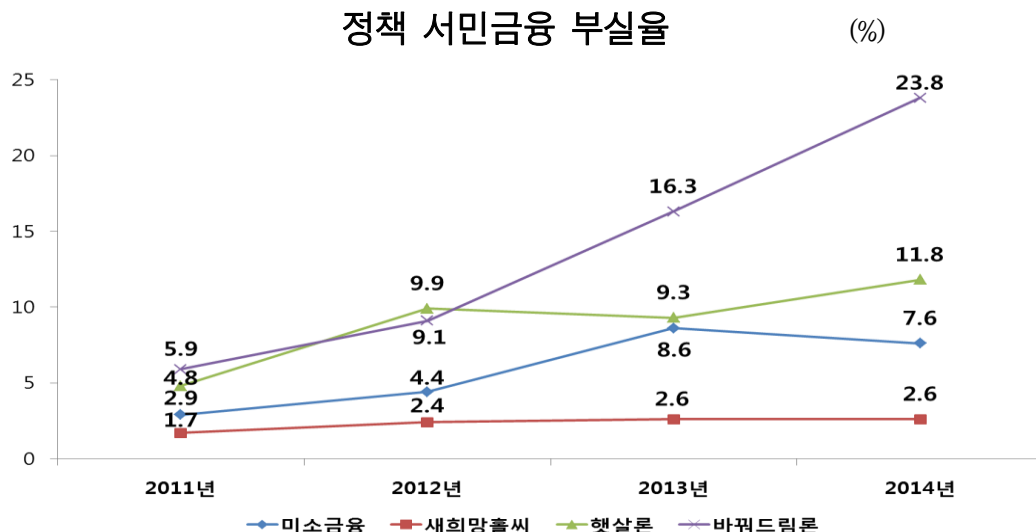
- 중금리 신용대출은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금융기관 고객의 신용등급, 거래성향, 조달금리 등의 차이에 따라 은행권은 10% 전후, 비은행권은 20% 미만으로 인식

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중금리 대출에 대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위비(우리은행), 씨니(신한은행), 사이다(SBI저축은행) 등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으나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

- 은행권은 최고 연체금리에 대한 제한, 부실 가능성, 고금리 영업에 따른 평판리스크 부담 등으로 미온적 태도
- 캐피탈·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원가구조, 저신용자 위주의 고객 구성으로 인해 20% 미만의 중금리 취급 유인 부족

□ 기존 중금리 서민금융상품의 부실율을 보면 중금리 대출은 다중채무자 위주의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추정됨

- 은행권에서 신용리스크를 고려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은 2% 중반의 부실율 보이고 있으나, 보증상품인 바퀴드림론 및 햇살론은 10%를 초과하는 부실 발생
- 금융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1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도 기존 대출 취급실적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



주: 햇살론 및 바퀴드림론은 대위변제율 기준

자료: 한국금융연구원, 2015년 금융동향과 2016년 전망세미나

담당: 정성국 수석연구위원
Tel. 051) 620-3189